



정교회주보

제2459호

2024.02.11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6> 11세기 말 건립된 아토스 성산 수도원 서열 여섯 번째인 쿠틀루무시우 수도원(사진)은 구세주 변모 수도원이라고도 불린다. 사각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1370년에 지어진 성당이 있다. 1859년과 1870년의 연이은 화재로 큰 피해를 보았다. 성인 70여 명의 유물 약 200점과 756권의 필사본, 약 5,000권의 서적을 보존하고 있다. 13개의 성당이 있다.



마태오 제 16 주일
성 블라시오스 주교순교자
성 테오도라 왕비 수녀
(제3조 • 조과 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82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고린토 후 6,1~10 · (봉)257
- 복음경 : 마태오 25,14~30 · 11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벗겨져 드러나는 만큼 다른 모든 진리도 더불어 드러납니다.

과학에도, 예술에도, 인간의 문화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의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고 해도, 또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줄 임무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은 오직 강렬한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중에서

노력과 은총의 선물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개발하고 가꾸며 신앙생활 해야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에게 합당한 은총의 선물을 주신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길을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바라신다.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많은 일을 주시고 적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은 일을 맡기신다. 어떤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마다 서로 다른 자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은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수행할 때 주님께서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총을 주시고 충실한 종의 위치를 한층 더 높여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에는 휴식이 없다는 것이다. 죄와 투쟁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의 길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투쟁해서 주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을 잘 수행하려 끊임없는 성화(聖化)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런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하여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영적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은총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면 후에는 열 달란트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백 달란트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평범한 진리로서 누구나 다 알듯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 현세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내세에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달란트를 행한 만큼의 위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로 오해받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사업상의 일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늦잠을 자서 허겁지겁 짐을 싸들고는 공항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던 호텔의 정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큰 소리로 택시를 불러세우리라 생각하며 뛰어갔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밖에서 여러 물건을 팔고 있던 어떤 할머니의 상품진열대를 자신의 가방으로 세계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과일이며 채소가 이리저리 흩어지며 날아가자 남자는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얼른 택시 뒷문을 열고 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할머니가 쏟아진 것들을 주워 담으려고 애쓰며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고, 더구나 그녀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남자는 얼른 택시에서 내려,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들을 모두 주워서 진열대 위 제자리에 정돈했을 때, 남자는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남자에게로 다가와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신가요?” 남자

는 펄쩍 뛰며, “아니요...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고 되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진열대가 뒤집어져서 온통 다 땅바닥으로 쏟아졌을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인 것처럼 오해받았던 때가 언제였던가...?’ 마음속에 사랑과 친절과 따스함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당신은 천사와 같은 존재이며, 어디를 가든 어디에 머무르든,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든, 천국을 실어나르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됩니다. ‘화향천리(花香千里 人香萬里: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같이 풍겨 나가지만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고린토 후 2,15-16)

주간 예배 안내

* 2월 17일(토)

한국 첫 성찬예배 기념일
성 테오도로스 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소 식

대교구 겨울 수련회 공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오늘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14(수)-17(토)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참가비: 9만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적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유혹을 거뒀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어느 수도자가 수도원을 떠나고 싶은 생각 때문에 9년간을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옷을 챙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내일은 지체 없이 떠나야지.”

날이 새고 나면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 하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한 번 더 참아 보고 내일 떠나자.”

주님께서 9년간을 치열하게 투쟁하며 유혹에 굴복하지 않은 그를 보시고는 마침내 그에게서 그 유혹을 거뒀습니다.